

〈목시룡전〉 형성의 두 가지 바탕*

김 근 태**

목 차

1. 머리말
2. 이본의 비교
3. <목시룡전> 형성의 소설적 바탕 - <사씨남정기>와의 관련성
 - 1) 인물 구성의 모방
 - 2) 사건의 모방
 - 3) 표현의 모방
4. <목시룡전> 형성의 역사적 바탕 - 실존인물과의 관련성
5. 결론

1. 머리 말

필자는 1992년도경에 고소설 독회를 하면서 김기동 교수 소장본인 필자본 국문 소설 <목시룡전>을 읽은 바 있다. 그 당시에는 목시룡 목시호 형제의 고난과 그것의 우애를 통한 극복에 초점이 있는 작품 정도로 이해하고 이본의 존재나 작품의 위상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로 지나치고 말았다. 그후 숭실대 국문학과와 조규익 선생 연구실에서 또다른 사본 <목시룡전>을 볼 수 있게 되어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다 우연히 영조년간의 왕조실록 내용을 살피다가 辛壬土禍(1721(경종 1) ~ 1722(경종 2))에 연루되었던 목시룡과 그의 동생 목호룡이라는 실존

*본고는 한국고소설학회 98 하계학술대회(1998년 7월 17일, 경북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질의를 통해 필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경산대학교 조춘호 선생과 한남대학교의 민영대 선생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숭실대 국문과 강사

인물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어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작품임을 알게 된 것이다.

본고는 <목시룡전>의 이본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하고, 작품 창작의 기본 바탕이 되었던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와의 관련성, 그리고 실존 인물과 작품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는 <목시룡전>을 창작하는데 필요했던 소설적 바탕과 역사적 바탕을 함께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실존 인물의 소설화에 대한 논의, 예컨대 실제의 목시룡과 목호룡이 작품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 그리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들을 소설화하였을까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예비적 연구임을 밝힌다.

2. 이본의 비교

<목시룡전>에 대해서는 김기동 교수의 작품 해제와 경산대학교 조춘호 교수가 우애소설을 언급하는 가운데¹⁾ 평가한 것이 전부이다.

이번에 <목시룡전>의 이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섯 개의 목시룡전 이본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국립도서관본, B 김기동 교수 소장본, C 박순호 교수 소장본, 그리고 D 조규익 교수 소장본, E 김해정 교수 소장본 <목시룡전>, 그리고 F 하버드대 연경도서관본 <목충효전>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E 김해정 교수 소장본과 F 하버드대 연경도서관본은 조춘호 교수의 논문을 통해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필자가 아직 검토를 하지 못한 관계로 이번에는 부득이 논의에서 제외하게 되었다.²⁾

네 가지 이본의 자세한 서지 사항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A 국립도서관본은 표제가 <陸始龍傳 목시룡전 권지단>으로 되어 있고 20 × 13.2 cm 크기에 52장(114면), 매행 평균 29자로 되어 있다. 표지에는 필사 연도가 “신미 시월 이십 칠일”로 되어

- 1) 김기동, <목시룡전>, 《韓國古典小說研究》, 642 ~ 645 쪽. 1983. 2. 教學社;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춘호, <한국 문학에 형상화된 형제 갈등의 양상과 의미>, 259 쪽. 경북대출판부, 1994. 8. 이 책에서 저자는 “우애의 실현이 군담 소설의 구조와 가문소설의 구조의 복합적 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조춘호 교수는 <목시룡전 연구>에서 우애 실현의 반복구조와 가사의 소설적 수용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심화시킨 바 있다. (《어문학》 58집, 경북대, 1996.8.)
- 2) <목시룡전>의 창작 연대와 의도에 관해 논의할 후속 논문에서 두 이본에 관한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자 한다. 김해정, <필사본 목시룡전>, 《우석어문》 2집, 우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이상택, <연경도서관본 한국고소설에 관한 일연구>, 《관악어문연구》 16집, 서울대 국문학과, 1991.

있는데 내용의 끝 부분에는 “신미 십일월 초오일 종호노라.” 하였다. 국립도서관 분류번호는 <의산 古3636-66>이다.

B 김기동 교수 소장본은 58장(115면) 매행 평균 18자, 필사 연도는 “갑인 구월 염오일”로 되어 있다. 확연히 구분되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글씨체가 번갈아 가며 쓰여 있다. 《筆寫本 古典小說 全集》 제14권 (김기동 편, 1982. 5. 아세아문화사)에 수록되어 있다.

C 박순호 교수 소장본은 표제가 <목시룡전이라>로 되어 있고 매행 평균 21자,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1면 정도가 낙장이 된 것이다. 심하게 흘러 써서 글씨체를 알아보기가 어렵고 중간중간에 내용의 누락이 많다. 《한글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제16권 (月村文獻研究所 편, 1986. 9.)에 수록되어 있다.

D 조규익 교수가 사본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은 표지에 <목시룡전 권지단>으로 표제가 되어 있고 19×29 cm 크기에 매행 평균 31자, 27장으로 되어 있으며 필사 연도는 표지에 “신희연 십일월 이십오일”로 되어 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미려한 글씨체로 써서 읽기가 쉽다. 조규익 교수가 1991년 4월 30일에 한 출판업자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한다. 필자가 그 출판업자에게 다시 문의하였으나 정확한 입수 경위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임시로 조규익 교수본이라고 하여 둔다.

위 네가지 이본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A 국립도서관본	B 김기등 교수본	C 박순호 교수본	D 조규의 교수본
시간적 배경	디명 시절	디명 연간	디명 가정 연간	디명 순화 연간
공간적 배경	순천부 옥하고 황용스 봉니산	순천부 학교 남악 군산 황용사 봉니산	순천부 오지구 황사 봉니산	순천부 옥하고 화통사 봉니산
작중 인물	목염 목시룡(字 용운) 목시호(字 용풍) 박지상(만성) 윤시량 엄순(승) 박도스	목염 목시룡(字 운종) 목시호(字 풍종) 박지상(문성) 윤시량 엄풍 박도스	목염 목시룡(字 없음) 목시호(字 없음) 박지상(막성) 윤시량 엄습 박도사	목염 목시룡(字 종운) 목시호(字 종풍) 방상서 윤시량 엄승(승) 유도사
내용 특징	청룡만 나오는 태몽을 꿈	청룡과 백호가 나타나는 태몽을 꿈	청룡과 대호가 나타나는 태몽을 꿈	동해용왕의 아들이 청룡으로, 구의봉 선군이 큰 범으로 화한 태몽을 꿈
			시룡과 시호를 윤시량이 구호하리라는 목염의 예언 부분이 누락됨	
		청룡이 월궁에 올라 제화 가지를 물고 초당으로 들어오는 꿈	청룡이 윤혜영의 품에, 황룡이 윤난영의 품에 드는 꿈	청룡 황룡이 제화를 물고 윤혜영과 난영의 초당으로 들어오는 꿈
	윤부인 형제 천자계혈서로 상소한 뒤 자탄가를 지어 동봉함 천자 한림의 죄를 사함	윤부인의 혈서 상소로 천자가 한림의 죄를 사함	윤부인이 혈서로 천자계 상소 천자가 한림의 죄를 사하는 부분과 한림이 지은 오류가의 앞 부분이 누락됨	윤부인이 불망자탄가를 지어 상소와 동봉하여 천자계 올림 천자 한림의 죄를 사함
	구주 백성들이 한림을 위해 노래를 지어 부름	한림이 구주 백성들에게 오류가를 가르침		구주 백성들이 한림을 위해 노래를 지어 부름
	작품 말미에 규훈가 378구가 첨부되어 있음	가달의 침입과 명군의 대항 내용이 확대되어 있음		

네 개의 이본 가운데 내용의 독창적인 전개면에서는 단연 C 박순호 교수본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룡 형제가 윤시량의 집에 도움을 청하러 간 날 윤혜영과 윤난영이 동시에 꿈을 꾸는데 청룡과 백호가 각각 품에 드는 것으로 표현한다든가, 가달이 침입한 상황에 명 조정에서 대장군 유통과 장군 대철을 보내어 결전하는 중에 엄승이 가달에 대응하여 명군이 패하게 만드는 전개는 극적인 긴장감을 불러 일으키는 대목이다. 다른 이본들 모두에서 박도사에게 배운 목시호가 단번에 가달의 장군 굴통을 결단내고 가달왕과 엄승을 잡아 죽이도록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과 좋은 대조가 된다.

C 박순호 교수본의 서술 기법의 특징을 보이기 위해 D 조규익 교수본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① 슈식만의 서주지경의 당호야 혼 고디 다다른니 여러 사람이 뵈와 자탄을 마저 아니 호거날 고의 역겨 그 고디 이르니 엇더흔 빈소의 호피와 유서를 보고 자탄하난지라. 연고를 무른디 그 사람드리 가로디 “순천부 사난 사람이 여 와 죽어디.” 하더라. 세상사를 엇지다 충양하리요. 슈연전의 흘님이 이고디 와 자다가 도적을 만나 형장을 일어더니 그 도적이 형장을 도적호야 가다가 왕용산 밋터 이르러 독사광난 나서 호옥을 통치 못하고 죽어거날 그 사람드리 산밋터 초빈호고 형장을 휘타호여 유서와 호피를 질가의 거러더니 …….)³⁾

② 화설 이적의 할림이 구주지경의서 유하다가 도적이 할림의 형장을 가지고 도망하다가 외용산호의 일어 독질을 으더 가지 못하고 급살로 죽은 지라. 웃지 천되 무심하리요. 그곳 사람이 도적의 죽음을 산호의 빈소할시 형장을 보니 호피와 유서 잇거날 길가의 거어던니 마참 시호 오다가 고이 여겨 나아가 보니 경영호 부친의 유서요 분명호 할림의 호피라. 보기를 다하디 정신이 이득호야 디성통곡호며 기절호여닷가 제요 인사를 차려 빈소를 붓들고 우년 말이 …….)⁴⁾

①에서는 목시호가 형을 찾아 구주로 가던 중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는데 호패와 부친의 유서로 보아 자기 형임을 단정하게 되는 부분을 먼저 제시하였다. 그 다음에 할림이 행장을 도둑맞은 일이 서술되어 있다. 이런 서술 순서는 독자와 서술자 인물의 관계에서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효과를 자아낸다. 먼저 서술자는 독자의 호기심을 증폭시킨 후 이를 해소해 주고, 시호만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행동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서술자·독자/작중인물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②에서는 사건의 진행을 평면적인 시간순으로 서술하여 긴장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3) C 박순호 교수본,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16, 737 ~ 738 쪽, 월촌문헌연구소, 1986. 9.

4) D 조규익 교수본, 14장 앞.

그런데 박순호 교수본은 중요한 부분에서 결락이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처지의 시룡 형제에게 윤시량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도록 하는 목염의 현몽이 누락되어 있고, 윤부인이 혈서로 천자에게 상소하는 내용 다음에 천자가 한림의 죄를 사하는 부분과 한림이 지은 오류가의 앞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마치 윤부인이 오류가를 지은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이본들을 견주어 볼 때 필사자의 착오로 인한 누락임이 분명하다.

A 국립도서관본과 D 조규익 교수본은 앞서 박순호 교수본과 비교해 볼 때, 지명이나 인명 등 고유 명사의 활용이 정확하고 작품의 전개 논리가 누락 없이 일관된 점과 구성이 다소 평면적인 점에서도 공통된다. 그리고 윤부인이 천자에게 상소와 별도로 가사를 지어 심정적으로 감동시킴으로써 한림의 죄를 사하게 만든다는 점, 구주의 백성들이 한림의 덕화에 감화되어 노래를 지어 불렀다는 점은 내용상 상호 일치한다. 다만 조규익 교수본은 작중인물명이 다른 본과 다르고 시룡과 시호 형제의 출생에서 謫降 화소가 삽입되어 영웅적 형상화가 이루어진 특징이 있으나 오자와 낙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B 김기동 교수본과 C 박순호 교수본에서는 윤부인이 상소를 논리적으로 펴서 천자를 깨닫게 함으로써 한림의 죄를 사하게 한다. 예를 들면 김기동 교수본에서 윤부인은 다음과 같이 한림을 변호한다.

“……첩의 지아비 목시룡은 충신의 조손 이읍고 연천호읍기로 국법 모르고 범혀엿사오니 싱즈
오며 또한 관전스는 쇼님이 출랍하느거시읍고 또 궁여을 통간함은 더욱이 부명치 못흔 일이오니
복걸 폐하는 첩을 관비 속공하와도 지아비 목시룡을 특방하와 유음쇼셔”
하여겨늘 천지 보길을 다하미 그 말리 당연하고 그 경상이 지극하기로 특별이 용서하여 할님의
게 스문을 너리시니라.5)

한편, 두 이본에는 한림이 구주 백성들을 위해 지은 장편의 오류가가 삽입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네 이본은 A 국립도서관본 D 조규익 교수본 / B 김기동 교수본 C 박순호 교수본으로 대별할 수 있게 된다.

이제 B 김기동 교수본과 D 조규익 교수본을 중심으로 작품의 순차적인 단락을 제시한 후 이 작품이 기본 바탕으로 삼은 <사씨남정기>와 비교할 단계에 이르렀다.

5) B 김기동 교수본, 334 ~ 335 쪽.

3. <목시룡전> 형성의 소설적 바탕 - <사씨남정기>와의 관련성

김기동 교수본을 중심으로 하고, 조규익 교수본을 부가적으로 하여 <목시룡전>의 순차 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명 (성화)년간에 순천부에 사는 목상서의 아들 목염(염)은 세대로 가난하였으나 문필과 그림에 뛰어난 인재였다.
2. 주위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양처를 구하고자 20세가 넘도록 취처를 하지 않았다.
3. 하교(옥하교)에 사는 전재상 박문성(방상서)은 무남독녀의 배필을 구하던 중 매파의 소개로 죽마고우인 목상서의 아들인 목염과 혼약을 맺는다.
4. 춘삼월 망간에 목염은 박재상의 딸과 혼인을 한다.
5. 박재상 부부는 우연히 득병하여 유언을 남기고 별세한다.
6. 목염이 30세가 넘도록 부부간에 혈육이 없자 부처에게 기자 발원을 다한다.
7. 일일은 남악 황룡사(화룡사)의 여승이 찾아와 관세음보살의 화상을 청하니 목염이 시주를 하고 그림을 그려주는데 쾌히 응한다.
8. 여승이 목염을 위하여 귀자 점지하기를 관음보살께 발원한다.
9. 목염의 꿈에 청룡이 여의주를 물고 품에 들고, 박부인의 꿈에 백호가 입을 벌리고 품에 드는 꿈을 꾸고 쌍둥이를 낳아 장자를 시룡이라 하고 (자를 운종(중운)), 차자를 시호라 (자를 풍종(중풍))라 하였다.
(인간에게 비를 잘못 내린 동해 용왕의 아들(청룡)이 시룡으로, 구의봉 선군(백호)이 시호로 태어남)
10. 시절이 태평하여 천자가 청렴강직한 선비를 찾자 목염이 추천되니, 천자는 목염에게 한림 벼슬을 제수한다.
11. 목염이 요순의 착한 덕과 결주의 행동을 그림으로 그려 올리니 천자가 칭찬하고 승상으로 직품을 올려준다.
12. 엄홍(승)이 목염으로 인해 마음대로 용권을 하지 못하여 그를 시기한다.
13. 목염이 고향에 안부 내용과 조정의 상황을 써 보내니, 시룡과 시호는 답서에서 벼슬을 버리고 보명할 것을 부친께 권유한다.
14. 목염이 아들들의 권유에 따라 귀향하여 농업에 힘쓴다.
15. 황성에서는 거리낄 것이 없게 된 엄홍(승)이 국사를 용권한다.

16. 목염이 신병을 얻고 박부인도 우연 득병하니, 백약이 무효라, 유서를 남기고 별세한다.
17. 시룡 형제가 삼년상을 마치고 나니 가산이 탕진하여 糊口할 방법이 없자 구걸을 한다.
18. 형제는 과거를 보고자 주경야독하다가 그들의 꿈에 부친이 현몽하여 7년 액운을 예언하고 윤시량을 찾게 한다.
19. 윤시량의 도움으로 형제가 급제하고 시룡은 한림학사를, 시호는 간의대부를 제수받는다.
20. 윤시량은 딸 혜영과 형의 딸 난영의 꿈 이야기를 듣고 시룡을 혜영과, 시호는 난영과 혼인하게 한다.
21. 동생 시호는 선영을 모시기 위해 사직하여 고향에 남고, 시룡은 벼슬길에 나아간다.
22. 엄홍(승)이 한림을 모함하여 한림은 구주 칠천삼백리로 원찬을 떠난다.
23. 한림은 서주 땅에 이르러 자다가 형장을 도둑맞는다.
24. 한림은 구주 땅에 이르렀으나 수도로 고생하며 시호를 그리워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 된다.
25. 한림의 꿈에 한 여승이 옥병의 물을 주어 병을 낫게 하고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을 예언한다.
26. 시호는 형의 적소로 찾아가던 도중에, 행장을 훔쳤던 도적의 죽음을 보고 형이 죽었다고 오해한다.
27. 시호는 축문을 짓고 악양루 기둥에 글을 쓰고 투신 자살한다.
28. 봉래산 박도사는 천기를 보고 제자로 하여금 시호를 살려오게 한다.
29. 박도사는 시호에게 앞 일을 예견하고 용병지술을 가르친다.
30. 윤부인은 혈서로 남편의 죄 사함을 상소하니 천자가 한림의 사문을 내린다.
31. 한림이 구주 사람들을 교화하던 중 사문을 받고 동정호를 지나다가 동생이 죽은 것으로 여긴다.
32. 한림이 신세를 한탄하다가 기절하였다가, 염라대왕을 만나 지옥 구경을 하고 깨어난다.
33. 한림은 동생의 앞길을 천도하고자 군산의 황용사를 찾아가 중이 된다.
34. 가달이 엄홍과 내용하여 황성을 침략하나 천자는 속수무책이 된다.
35. 박도사는 천기를 보고 시호를 출정하게 하니 시호는 가달을 쳐부수고 엄홍을 죽인다.
36. 천자는 시호에게 승록대부겸대도독대원수를, 죽은 것으로 알려진 시룡에게는 충렬공으로 시호를 내린다.
37. 천자는 호란 후의 민심을 수습하고자 시호로 하여금 황용사에 가 치제하게 한다.
38. 시룡과 시호는 서로 몰라보다가 관음화상에 쓰인 부친의 글로 인해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된다.
39. 형제가 함께 고향에 돌아가 부인들과 재회한다.
40. 형제가 각각 아들 삼형제를 낳고, 부인과 함께 백세동락하니 가문이 자자손손 번성한다.

전체적인 단락 전개를 살펴 보면, <목시룡전>은 전반부에는 형제가 행동을 함께 해나가지만 단락 22의 시룡이 구주로 원찬을 당하고부터는 형제가 이별하여 상이한 행위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단락 22를 이 작품의 두 번째 국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작품에서 인물이 지닌 비중도 변화한다. 첫 번째 국면에서는 쌍둥이 형제의 비중이 대등하지만, 두 번째 국면에서는 목시룡의 사건이 먼저 서술되기 때문에 비중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목시룡은 세계와의 투쟁에서 계속 열세에 있는 인물에 불과하다. 목시호에 관한 서술이 배경화되어 있지만 그의 능력은 잠재되어 있으며, 드디어 단락 29에서 박도사라는 원조자를 만나고부터 시호의 능력은 더욱 비범함을 획득하게 된다. 결국 시호의 능력은 두 번째 국면인 단락 22에서 예비되고 있다가 단락 29에서부터는 국가적인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외적과 역적을 동시에 처단하는 단락 35는 시호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극대화된 부분이다. 세 번째 국면은 단락 38 이후인데, 여기에서도 시호의 행위는 시룡을 찾아내고 가문을 일으키는 보다 능동적인 행위로 부각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시룡전>은 사실상 목시룡보다 목시호의 능력과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특이한 인물 구성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이러한 인물 구성 방법은 <목시룡전>이 형성되는데 필요했던 두 가지 바탕을 염두에 두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목시룡전>의 기본적 틀이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처첩간의 갈등으로 짜여진 가정적 사건과 충신 간신의 대립으로 점철된 국가적 사건이 결합된 <사씨남정기>는 유한림과 사정옥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다. <목시룡전>은 이러한 <사씨남정기>의 인물 구성·사건·표현 등을 모방하고 있다. <목시룡전>과 <사씨남정기>의 내용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을 작품 전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인물 구성의 모방

<목시룡전>에서 목시룡의 부친 목염과 엄홍(승)의 대립은 <사씨남정기>에서 유한림의 부친 유현과 엄승의 대립에서 착안하고 있다. 인물의 이러한 대립적인 구성은 각 작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파생시키게 되는 골간이 된다. 두 작품에서 부친의 정적이 자식의 정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주인공의 유배 사건이 파생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한편,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은 <목시룡전>에서는 목염과 황용사의 여승이 맡고 있는데, 이들은 <사씨남정기>의 '유현'과 군산사의 '묘혜'에서 차용해온 인물로 보아야 한다. 조력자형의 인물에 대해서는 작중 사건과 관련해서 뒤에 거론하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대립적 인물과 조력자형 인물은 <목시룡전>과 <사씨남정기> 간의 영향관계를 비교적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요소들이다. 그런데 <목시룡전>의 목시룡 목호룡 형제는 <사씨남정기>의 유한림과 사씨의 관계를 차용하되 나름대로 변형시킨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목시호가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귀양가는 점은 유한림의 경우에서, 형이 죽은 줄로 안 목시호는 악양루 기둥에 글을 써놓고 투신 자살하는 것은 사씨의 행동에서 차용한 것이지만, 목시룡이 불교에 의탁하는 내용은 사씨에게서, 목시호가 형을 발견하는 점은 유한림의 경우에서 차용해 오고 있다. 목시룡과 목호룡의 인물 구성은 사씨와 유한림을 일대일로 차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목시룡전>이 주인공을 쌍둥이로 형상화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사건의 모방

<목시룡전>이 <사씨남정기>에서 착안한 것은 인물 구성에서 뿐만 아니라 사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작품의 전개 순서에 따라 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목시룡전>에서 목염이 황용사 여승에게 관음화상을 그려주는 것과 <사씨남정기>에서 유현이 사정옥의 뒤통이를 파악하기 위해 관음화상에 찬을 짓게 하는 것이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관음화상과 관음찬이 작품의 후반에서 이산되었던 인물들을 재회하게 만드는 기능도 유사하다.

둘째로, <목시룡전>에서 목염이 아들들에게 현몽하고 칠년 액운을 예언하는 사건은 <사씨남정기>에서 유소사가 사씨에게 현몽하고 칠년 액운을 예언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 사건이 두 작품에서 동일하게 고난에 처한 인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된다는 점도 같다.

셋째, <목시룡전>에서 목한림의 원찬은 <사씨남정기>에서 유한림의 정배와 유사하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작중 인물의 구성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 점이다. 두 작품 모두에서 부친들이 예언했던 사건의 실현이라는 점, 정적에 의해 모함을 받아 원지로 유배 당한다는 점도 일치한다. 다만 유한림의 정배가 교씨와 동청이 꾸민 가정사에 의해 촉발된 것은 차이가 나는 점이지만, 부친 세대로부터 기인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넷째, <목시룡전>과 <사씨남정기> 두 작품에서 공히 옥병의 물과 학사정이 등장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목한림과 유한림이 각각 수도와 향수병으로 죽음에 직면했을 때 꿈 속에서 나타난 여승이 옥병의 물을 주어 구원하고, 다음날 아침 마당에서 샘이 솟아나며 그곳 사람들이 이 샘을 학사정(한림천)이라 부르게 된 것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다섯째, <목시룡전>에서 시호가 동정호의 악양루에 글을 쓰고 투신하는 사건과 시룡이 통곡하다 꿈을 꾸고 염라대왕과 죽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건은 <사씨남정기>에서 사씨가 동정호의

악양루에서 투신하려다 꿈에 이황 여영 莊姜 班婕妤 등 죽은 여인들을 만나는 사건에서 착안한 것이다. 시호는 박도사에게 구출되고 시룡은 여기에서 황용사 여승의 인도로 잠시 스님이 되는데 각각 나중에 만날 사람이 있다는 예언을 듣게 된다. 사씨는 투신 자살하려다 실패하고 군산사 여승 묘혜를 만나 암자에 기거하게 되는데, 나중에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예언된다. 시룡과 시호가 악양루에서 하는 행동은 사씨의 행위를 두 인물이 나누어서 모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3) 표현의 모방

다음과 같은 표현의 일치는 <목시룡전>이 결국 <사씨남정기>의 영향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두 작품에서 매파는 각각 다음과 같은 대화를 사용하고 있다.

만일 권문과 부귀를 취할실진던 지금 업승상 덕 갖튼 이 읍사와도 효행과 문필을 취할실진던
순천부의 사난 목상셔덕 자계 갖튼이 읍싸오니……<목시룡전>

노야 만일 부귀를 탐할시면 업승상의 손녀만한 이 읍고, 반다시 요조흔 숙녀를 구할시라면
신성현 사급스덕 소져 외에 또드시 읍싸오니 …… <사씨남정기>

위에 거론한 사항들은 <목시룡전>이 <사씨남정기>의 여러 부분을 모방하여 창작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가 된다. 특히 <목시룡전>의 인물 구성은 두 명의 주인공이 윤리적인 주제를 엮어나가는 <사씨남정기>로부터 끌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⁶⁾

4. <목시룡전> 형성의 역사적 바탕 - 실존 인물과의 관련성

지금까지 <목시룡전>이 인물 구성·사건·표현 면에서 <사씨남정기>에서 많은 부분을 모방했음을 밝혔다. 그것은 부부 윤리를 다룬 <사씨남정기>를 형제애로 변형시켜 수용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목시룡전>에서 제명으로 삼고 있는 인물보다 그의 동생을 부각시킨 것은 다른

6) 그렇다고 해서 <목시룡전>이 다른 작품의 단순한 모방작이라고 하는 것은 속단이다. 특정 작품의 장면을 모방하기는 했으나, 나름대로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것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씨남정기>에서는 반목했던 부부가 각기 고난을 겪다가 상봉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화해라는 의미가 부각되는데 비해, <목시룡전>에서는 환경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탓에 형제가 함께 걸렸다가 해후하기 때문에 우애의 확인으로 마무리된다.

어떤 소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이를 이 작품이 지닌 독창적인 면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필자는 이러한 인물 구성에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필자는 이 작품에 형상화된 목시룡과 목시호의 관계가 경종 ~ 영조 즉위 초에 실존하였던 陸時龍과 陸虎龍을 모델로 한 것에서 연유한다고 생각한다.

실존 인물인 陸時龍은 壬寅獄事(1722, 경종 2)를 촉발케한 陸虎龍(1684, 숙종 10 ~ 1724, 영조 즉위년)의 형이다. 賤孽이기 때문에 목시룡의 이력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목호룡이 당쟁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실록과 당시의 기록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목호룡은 본관이 泗川으로 참판 進恭의 후손으로서, 南人의 賤孽이었다. 종친 靑陵君의 家僮이었는데 풍수를 배워 사대부들과 교제를 한 인물로 閔鎭遠의 <丹巖漫錄>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世弟 연잉균(뒤의 영조)의 私親의 葬地를 정해주고 贖身이 되었으며 宮差使에 임명되어 庄土와 곡식을 관장하면서 부호가 된 자였다.⁸⁾ 그는 처음에는 노론인 金龍澤 李天紀 李器之 등과 함께 왕세제를 보호하는 편이었으나, 1721년 金一鏡 등의 상소로 金昌集 등 노론 4대신이 실각하여 유배되고 소론 정권이 들어서자, 다음해인 1722년 소론편에 가담하여 경종을 시해하려는 모의가 있었다는 이른바 三急手說을 告變하였다. 이 고변으로 인하여 노론이 또다시 숙청되고 노론의 4대신인 李頤命 金昌集 李健命 趙泰采 등이 사형되었으며, 목호룡은 그 공으로 扶社功臣 3등으로 東城君에 봉해지고 동지중추부사에 올랐다. 그러나 1724년 노론의 지지를 받던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측의 상소로 신임사회는 무고로 일어난 것으로 밝혀지고 김일경과 함께 붙잡혀 옥중에서 급사하였는데 죽은 후 唐古介에서 효수되었다.⁹⁾

목시룡도 역적의 형이라하여 고성현의 종이 되었다가 노론측의 수차례에 걸친 상소로 1728년(영조 4) 3월 16일에 결국 처단되고 말았다.

<목시룡전>에 등장하는 쌍둥이 목시룡과 목시호가 실존했던 형제인 陸時龍과 陸虎龍을 모델로 삼았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다음의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역사상의 陸時龍과 陸虎龍의 관계가 작품상의 목시룡과 목시호와 유사하다는 점에 있다. 동생인 陸虎龍은 서얼이라는 계층적

7) 辛丑換局(1721, 경종 1)과 壬寅獄事(1722, 경종 2)를 함께 일컬어 辛壬士禍라고 하는데, 이는 노론과 소론간에 치열하게 벌어진 당쟁이다. 경종이 신체가 병약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왕세제(뒤의 영조) 吟을 代理聽政시키자고 주장한 金昌集의 상소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을 반대한 金一鏡이 陸虎龍을 사주하여 옥사를 일으켰다. 경종 때부터 영조 초까지의 당쟁과 신임사회에 대해서는 李熙煥, 朝鮮後期黨爭研究, 國學資料院, 1995. 朝鮮後期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城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李泰鎮,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研究院, 198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8) 李熙煥, 朝鮮後期黨爭研究, 241 쪽. 國學資料院, 1995.

9) 吳甲均, 목호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계를 비상한 두뇌로 극복하고 정치적인 야심가로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성격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형인 陸時龍은 陸虎龍이 일을 꾸밈에 주변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맡고 있었음이 영조가 친국하는 과정에서 밝혀져 있다. 작품상에서 나약하게 묘사된 목시룡과 능동적이고 행동적으로 묘사된 시호의 이미지가 실존 인물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陸虎龍이 처음에 역모를 고변하면서 스스로 묘사한 자신의 모습과 작품 상에 그려진 목시호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이다.

저는 堪輿術을 조금 알고 있으므로, 일찍이 龍門山에 들어가 뿔자리를 구하려 다니다가 이희지를 만나 서로 더불어 詩를 논하였는데, 이희지가 그의 落日詩를 외며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先王의 병환이 바야흐로 危重하였는데, 詩의 뜻이 음험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내가 이미 堪輿術을 알고 있으니, 또한 遁甲術도 아는가?' 하므로, 제가 '내 친구 중에 遁甲을 잘 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는데, 또 그 사람의 姓名을 묻기에 제가 즉석에서 지어내어, '談爾란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날 이희지가 다시 저를 찾아와 담이의 거처를 묻고, 또, '내가 바야흐로 蓮洞 相公의 叔父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네가 만약 나를 찾아 온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친구인 麻田 사는 정인중 또한 奇士이니, 너를 보면 반드시 크게 기뻐할 것이다. 다만 와서 보기만 하라.' 하므로, 제가 응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뒤 닷새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희지가 노새를 보내어 저를 부르므로 蓮洞 김용택의 집으로 갔더니, 이희지·김용택·정인중·이기지 등이 둘러앉아 있다가 평생을 사권 사람처럼 기쁘게 맞았고, 모두들 담이를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遁甲·馬步에 관한 책을 얻기를 원하였는데, 제가 웃으며, '둔갑은 사람에게 달려 있지 어찌 책에 있겠는가?' 하였더니, 이기지·정인중 등이 아주 기이하게 여기며, '이 사람은 더불어 마음을 논할 만하다.'라고 하고, 인하여, '내가 사는 동네에 지금 세상에 荊蕀과 같은 부류가 있어 屠市 간에 숨어 살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미 속으로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답하기를, '내 친구들 중에는 俠客과 같은 부류가 많다.' 라고 하였더니, 좌중의 손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¹⁰⁾

陸虎龍은 자신을 감역술과 둔갑술을 아는 협객의 무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상에 목시호는 병서를 읽고 풍운조화지술을 쓰는 능력의 소유자로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앞의 표현과 상당한 부분 일치한다고 하겠다.

시호 천조계 하직하고 즉세 니형을 모시여 고향으로 도라와 선영 수호를 극진이하고 제가지도를 엄숙키 하며 문무겸전할 뜻으로 손오병서를 일그이 본디 지조가 명민호고로 육포삼늑과 풍운지

10) <경종실록>, 경종 2년 3월 27일(임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5~46쪽, 1989. 10. 논문 부록 참조.

조화지술을 무불통지허더라.¹¹⁾

시호 왈 “선성님께옵서 분부흐옵신니 쇼성이 맛당이 시형호오리다.” 호고 니날부터 용검지술과 둔갑장신지법을 가르치신니 시호 본디 지조 | 출중흔 사람이라 엇지 신통치 못하리오.¹²⁾

시호 복지주왈 “선성의 말삼 여차호온이 명을 밧짜와 봉형호올이다.” 호고 이날부터 천문지리와 용병지술을 익키면서 장신둔갑지술을 무불통지허니 엇지 신통치 안니 허리오.¹³⁾

바로 이와 같은 근거들은 역사상의 陸時龍·陸虎龍과 작품상의 목시룡·목시호라는, 단순한 작중 인물명의 유사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¹⁴⁾ 그러므로 <목시룡전>은 실제적 인물에 바탕을 두고 창조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목시룡전>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성은 <사씨남정기>와의 관련성과 함께 작품의 창작적 바탕으로서 중시해야하는 점이 아닐 수 없다.

5. 결 론

지금까지 <목시룡전>의 4개 이본을 비교하고 단락 분석을 한 후, 이 작품이 형성되는데 필요했던 소설적·역사적 바탕에 대하여 논증해왔다.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결론을 삼으려 한다.

<목시룡전>의 소설적 바탕은 <사씨남정기>의 틀에서 착안한 것이다. <목시룡전>은 형제간의 우애를 주제로 한 소설로 부부 윤리를 주제로 삼은 <사씨남정기>의 영향 아래 창조된 작품이다. 대립적 인물과 조력자의 경우는 <사씨남정기>의 직접적 영향이 강하고 쌍둥이 주인공의 경우에는 유한림과 사씨의 경우를 변형시켜 수용하고 있다. 사건의 측면에서는 관음화상과 관음찬, 부친들의 현몽, 목한림과 유한림의 유배, 옥병의 물과 학사정, 목시호의 투신과 목시룡의 염라왕 만남 사건 등이 두 작품에서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표현의 측면을 보면 두 작품에서 매파의 말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11) B 김기동 교수본, 311 쪽.

12) 국립도서관본, 31장 앞 ~ 뒤.

13) D 조규익 교수본, 15장 뒤 ~ 16장 앞.

14) 국립도서관본의 제목에서만 한자로 陸始龍으로 표기하고 있고 다른 이본에서는 한글 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중 인물의 표기는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편, <목시룡전>은 辛壬士禍(1721년(경종 1)~1722년(경종 2))를 촉발케 한 陸虎龍 그리고 그의 형인 陸時龍을 바탕으로 삼아 형성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역사상의 陸時龍과 陸虎龍의 관계가 작품상의 목시룡과 목시호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목호룡의 경우 자칭 협객의 무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목시호가 작품상에서 병서를 읽고 풍운조화지술을 쓰는 능력의 소유자로 표현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의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목시룡전>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는 목시룡과 목호룡이라는 실존 인물의 소설적 형상화라는 문제를 깊이있게 연구하여, 이 작품의 창작 동기를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자료

- 국립도서관본 <睦始龍傳 목시룡전 권지단>, 국립도서관 <의산 古3636-66>, 20 × 13.2 cm
52장 (114면)
- 김기동 교수 소장본 <목시룡전>, 58장(115면), <筆寫本 古典小說全集> 제14권,
김기동 편, 아세아문화사, 1982. 5.
- 박순호 교수 소장본 <목시룡전이라>, 42장, <한글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제16권,
月村文獻研究所편, 1986. 9.
- 조규익 교수 소장본 <목시룡전 권지단>, 19×29 cm 27.
- 국립도서관본 <사시남경과> 권지일 ~ 권지사.

● 논저

- 김기동, <목시룡전>, <韓國古典小說研究>, 教學社, 1983. 2.
- 김기동, <목시룡전>,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김해정, <필사본 목시룡전>, <우석어문> 2집, 우석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 吳甲均, <목호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이상택, <연경도서관본 한국고소설에 관한 일연구>, <관악어문연구> 16집,
서울대 국문학과, 1991.
- 조춘호, <목시룡전 연구>, <어문학> 58집, 경북대, 1996.8.
- 조춘호, <한국 문학에 형상화된 형제 갈등의 양상과 의미>, 경북대 출판부, 1994. 8.
- 李熙煥, 朝鮮後期黨爭研究, 國學資料院, 1995.
-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城南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2.
- 李泰鎭, 朝鮮後期の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研究院, 1985.
- <경중실록>,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9. 10. 31.

Abstract

On the formative process of 〈Mok si ryong jun〉

Kim, Keun-Tea

This study is on the formative process of a classical novel <Mok si ryong jun>, about which only brief contents has been reported.

After comparing the four different texts and analysing their contents, I demonstrated the historical and literary backgrounds that were necessary for the formation of <Mok si ryong jun>.

The literary background of <Mok si ryong jun> was arranged by the framework of <Sa s'i nam jung ki>. <Mok si ryong jun> is based on the brotherliness, and was created under the influence of <Sa s'i nam jung ki> which is based on the morals of man and wife. And it was strongly influenced by <Sa s'i nam jung ki> in describing the characters such as 'opponents' and 'helper', modifying in the case of main characters who are presented as twins.

These two novel works are almost the same in main events ; the fathers' appearing in a dream, the condemnation of 'Mok han-rim' and 'Yoo han-rim', etc. Furthermore, some expressions of these works are very similar ; the utterance of an old matchmaker for example.

In addition to that, I discovered that the real achievements of 'Mok ho ryong' and his elder brother 'Mok si ryong' ar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Mok si ryong jun>, which brought about the political trouble 'Sin im sa wha(1721 ~ 1722)'.

With these conclusions as a momentum, I will continuously explore the creative motivations of <Mok si ryong jun>, considering how the historical figures are presented in a novel work.

▣ 부록 <경종실록 목호룡의 상변 내용>

목호룡(陸虎龍)이란 자가 상변(上變)하여 고(告)하기를,

“역적(逆賊)으로서 성상(聖上)을 시해(弑害)하려는 자가 있어 혹은 칼로써 혹은 독약(毒藥)으로 한다고 하며, 또 폐출(廢黜)을 모의한다고 하니, 나라가 생긴 이래 없었던 역적입니다. 청컨대 급히 역적을 토벌하여 종사(宗社)를 안정시키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역적 중에 동궁(東宮)을 괘아 씻기 어려운 오욕을 끼치려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역적의 정상을 구명(究明)해서 누명(累名)을 씻어 국본(國本)을 안정시키소서.”

하였다. 승지(承旨) 김치룡(金致龍) 등이 변서(變書)를 가지고 입대(入對)하여 왕옥(王獄)에 회부하고 대신(大臣)을 불러서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하니, 드디어 내병조(內兵曹)에 정국(廷鞠)을 설치하였는데, 목호룡이 공칭(供稱)하기를,

“저는 비록 미천(微賤)하지만 왕실(王室)을 보존하는 데 뜻을 두었으므로, 흉적(凶賊)이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만들려고 모의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는 호랑이 아가리에 미끼를 주어서 비밀을 캐낸 뒤 감히 이처럼 상변(上變)한 것입니다. 흉적(凶賊)은 정인중(鄭麟重)·김용택(金龍澤)·이기지(李器之)·이희지(李喜之)·심상길(沈尙邦)·홍의인(洪義人)·홍철인(洪哲人)·조흠(趙洽)·김민택(金民澤)·백망(白望)·김성행(金省行)·오서종(吳瑞鍾)·유경유(柳慶裕)입니다. 저는 감여술(堪輿術)을 조금 알고 있으므로, 일찍이 용문산(龍門山)에 들어가 뒷자리를 구하려 다니다가 이희지를 만나 서로 더불어 시(詩)를 논하였는데, 이희지가 그의 낙일시(落日詩)를 외며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선왕(先王)의 병환이 바야흐로 위중(危重)하였는데, 시(詩)의 뜻이 음험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네가 이미 감여술(堪輿術)을 알고 있으니, 또한 둔갑술(遁甲術)도 아는가?’ 하므로, 제가 ‘내 친구 중에 둔갑(遁甲)을 잘 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는데, 또 그 사람의 성명(姓名)을 묻기에 제가 즉석에서 지어내어, ‘담이(談爾)란 사람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음날 이희지가 다시 저를 찾아와 담이의 거처를 묻고, 또 ‘내가 바야흐로 연동(蓮洞) 상공(相公)의 숙부(叔父)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네가 만약 나를 찾아 온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친구인 마전(麻田) 사는 정인중 또한 기사(奇士)이니, 너를 보면 반드시 크게 기뻐할 것이다. 다만 와서 보기만 하라.’ 하므로, 제가 응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뒤 닷새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희지가 노새를 보내어 저를 부르므로 연동(蓮洞) 김용택의 집으로 갔더니, 이희지·김용택·정인중·이기지 등이 둘러앉아 있다가 평생을 사귄 사람처럼 기쁘게 맞았고, 모두들 담이를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둔갑(遁甲)·우보(馬步)에 관한 책을 얻기를 원하였는데, 제가 웃으며, ‘둔갑은 사람에게 달려 있지 어찌 책에 있겠는가?’ 하였더니, 이기지·정인중 등이 아주 기이하게 여기며, ‘이 사람은 더불어 마음을

논할 만하다.'라고 하고, 인하여, '네가 사는 동네에 지금 세상에도 형섭(荊蕀)과 같은 부류가 있어 도시(屠市) 간에 숨어 살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미 속으로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답하기를, '내 친구들 중에는 협객(俠客)과 같은 부류가 많다.'라고 하였더니, 좌중의 손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뒤로 왕래가 서로 잦았는데, 그래도 깊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정인증이 김용택의 집에 가서 저를 부르기에 제가 갔더니, 이희지·김용택·정인증이 모두 있었습니다. 정인증이 물기를, '너는 현학 산인(玄鶴山人) 이태화(李泰華)의 성명을 들어보았느냐? 이 사람이 거문고를 타면 현학(玄鶴)이 내려와 앉으며 백 리 밖의 일을 알 수 있는데, 네가 말한 담이(談彌)라는 사람은 이 사람과 비교해 보아 어떠한가?' 하므로, 제가 답하기를, '담이를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과 서로 만나볼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 내가 천서(天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한다.' 하였더니, 정인증의 눈썹이 꿈틀하며 기뻐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문밖에 와서 자기가 이태화라고 하면서 스스로 둔갑술에 능하다고 하므로, 제가 답하기를, '시무(時務)를 아는 것은 준걸(俊傑)에게 달려 있으니, 둔갑을 어찌 죽히 말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태화가, '지금의 호걸은 누구인가?' 하므로, 제가 '정인증이 지금의 방통(龐統)과 같은 부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인증이 저를 찾아와 도시(屠市) 간의 협객(俠客)을 구하였습니다. 때마침 백망(白望)이 어떤 일 때문에 제 집에 왔는데, 용모(容貌)와 풍신(風神)이 멀썩하고 당당(堂堂)하였으므로, 정인증이 눈여겨 보면서, '이 사람 또한 협객의 부류인가?' 하기에, 제가 답하기를, '이 사람은 협객 중에서 제일 가는 사람으로서 그 용력(勇力)은 대적(對敵)할 자가 없다.'고 하였더니, 정인증이 백망(白望)의 거주지를 상세히 묻고 갔습니다. 제가 백망을 머무르게 하고 이르기를, '너의 집을 물어본 것은 장차 너의 용력을 쓰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상대하기가 쉬우나 그 중에 이희지란 자가 있는데 피가 깊은 사람이다. 만약 너를 만난다면 반드시 나의 심사(心事)에 대하여 물어 볼 것이니, 너는 '사생지교(死生之交)를 맺었다.'고 답하라.'고 하였는데, 백망은 본래 교활하고 구변(口辯)이 좋은 사람이므로, 제 말을 듣자 이미 그가 장사(壯士)를 구하려는 마음을 가졌음을 알아차리고 서로 약속한 뒤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새벽 정인증이 나귀를 끌고 백망의 집으로 가서 백망을 태워 갔는데, 하룻밤을 지낸 뒤 백망이 돌아와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제 크게 께맨 자루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는데, 께맨 자루란 국청 죄인(鞠廳罪人)이 자루로 머리를 싸매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백망이 한 말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김용택의 집에 갔더니 김용택·이천기(李天紀)·정인증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의 좋은 신수(身手)를 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그의 용력(勇力)을 물었습니다. 백망이 스스로 그의 용력이 고인(古人)에게 크게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부(自負)하자, 드디어 술잔에 술을 따라 맹세하고 사생(死生)을 같이할 벼으로 맺었습니다. 백망이, '그대들이 나를 쓰려고 한다면 내가 마땅히 힘을 다할 것이다. 주상(主上)의 병환이 날로 위중(危重)해지고 있으니, 만약 불휘(不諱)한 일이라도 있게 된다면 세상에 유비(劉備) 같은 이가 없으니,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니, 여러 사람들

이, '비록 유비는 없지만 장래에 저절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고, 각자 손바닥에 글자를 써서 심사(心事)를 표시하였는데, 김용택은 '충(忠)'자를 썼고, 다른 사람들은 혹 '신(信)'자나 '의(義)'자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백망은 '양(養)'자를 썼으므로 좌우에서 서로 돌아보며 그 뜻을 알지 못했으나, 유독 이 천기만은 알아차리고 크게 웃었으니, 대개 '양(養)'자는 '양숙(養叔)'을 이른 것으로 이이명(李頤命)의 자(字)가 양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망이 돌아오려고 할 즈음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곧 연잉군(延昞君)의 첩(妾)의 조카이다.'라고 하자, 좌우 사람들이 놀라서 얼굴빛이 변하며, '이는 반드시 목호통이 우리들의 일을 엿보아 탐지해 낸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천기가, '목가(睦歌)는 본래 상인(常人)이니, 이익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하며, 정인중으로 하여금 편지를 써서 저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천기의 집에 갔더니, 이천기가 저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 장차 은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정인중이 발을 밟아 제지하므로, 제가 웃으며, '그대들이 백가(白哥)와 동모(同謀)한 말을 내가 모두 들었는데 다시 무엇을 감추고 속이려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천기가 마침내 저에게 묻기를, '백가가 「나인[內人]과 많이 결탁하고 있으므로, 급수(急手)를 쓸 수 있다.'하였는데, 그 말이 어떠한가?'라고 하므로, 제가 '급수(急手)란 어떤 약을 쓰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천기가 '백가가 「은(銀) 5백 냥으로 중원(中原)에서 사들인 환약(丸藥)을 한 개 먹으면 즉시 쓰러져 죽게 된다.' 하였다.'고 하므로, 제가 답하기를, '비록 즉시 쓰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약을 쓴다면, 주상께서 반드시 노하여 좌우에 캐물을 것이고, 독장(毒杖) 아래에서 여인(女人)이 반드시 자복(自服)할 것이니, 너희들은 장차 어육(魚肉)이 될 것이다. 성상의 만세(萬歲)를 기다린 뒤에 백가로 하여금 잘하게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상책(上策)이다.'라고 하자, 이천기는 옳다고 하였으니 김용택만은 유독 소매를 걷어붙이고 성급하게 백가와 결탁하여 역적질을 도모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홍의인(洪義人) 형제는 이천기와 바로 이웃에 살았는데 하는 일을 엿보고서는 스스로 얻기 어려운 기회라고 생각하여 여러 가지로 아첨하여 그 가운데에 느닷없이 끼여드니, 김용택이 노하여, '우리들이 매우 위태한(萬死一生) 계책을 내었으니 천고(千古)의 대사업(大事業)이 바로 이 일에 달려 있는데, 저 홍가(洪哥)는 어떤 사람이기에 들어와서 매화점(梅花點)이 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김용택 · 정인중 · 백망이 동심 합력(同心合力)하였고, 홍의인 · 이천기 · 이기지는 저와 더불어 서로 사이가 좋아졌으며, 이회지는 양쪽 사이에서 노닐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지가 관상술(觀相術)로 저를 헐뜯기를, '이 사람이 얼굴은 검은데 말은 다른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니 믿기 어렵다. 멀리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이천기가 그 말을 저에게 전해 주기에 제가 웃으며, '참으로 당거(唐擧)의 새끼로다.' 하고는 서로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기지는 자못 푸대접하는 기색이 있었으므로, 홍의인이 이기지를 협박하기를, '목호통이 이미 언문(諺文)으로 된 유서(流書)를 쥐고 있고, 또 폐립(廢立)에 관한 조서(詔書)의 초본(草本)을 보았으니, 그대 집안이 멸족(滅族)되는 것은 그가 혀를 놀리는 데 달려 있다. 잘 대우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하니, 이기지가 두려워하여 마침내 홍의인과 결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희지 저에게, '너는 어찌하여 요사이의 은밀한 정상(情狀)을 남인(南人)들에게 누설하였는가?'라고 하므로, 제가 웃으며, '내 혀가 있는가 보라. 어찌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기를 기다리겠는가? 내가 부귀(富貴)를 취하고자 한다면, 너희들을 고발하는 것은 다만 잠깐 동안의 일일 뿐이다. 너는 어디에서 이런 말을 들었는가?'라고 하였더니, 이희지가 '서관(西關) 사람 장사방(張四方)이 귀신의 말을 잘 하는데, 네가 반드시 남인들에게 누설할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웃으며, '옛말에 이르기를, 「귀신에게 말을 듣고 따르면 망한다.」고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무당의 말을 듣는가?' 하였더니, 이희지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저를 의심하여 실사(實事)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몰래 백망과 결탁하여 국상(國喪) 때 임하여 일을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백망을 협박하기를, '네가 만약 불계(不軌)한 일을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고발할 것이다.'라고 하자, 백망이 저를 두려워하여 감히 역적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국상(國喪) 뒤 여러 적(賊)들이 비로소 제가 중간에서 저지하여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는 심상길(沈尙吉)을 시켜 저를 전라 병영(全羅兵營)으로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심진(沈晉)의 막하(幕下)에서 어미의 병을 핑계대로 곧바로 돌아오자, 적(賊)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들의 일을 네가 모두 알고 있으므로, 지금 이기지·김민택(金民澤)·김계겸(金濟謙) 등이 모두 두려워한 나머지 이홍술(李弘述)을 사주(使囑)하여 장차 너를 체포해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헌(李憲)을 포도 대장(捕盜大將)에게 보내어 겨우 면하게 해 놓았다. 네가 만약 글 한 통을 써 준다면 이것을 가지고 김용택과 이기지에게 약속할 것이니, 너는 살 수가 있다.' 하였습니다. 제가 웃으며, '그대들은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내가 비록 스스로 직접 범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변(告變)하면 반드시 무시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글을 쓰겠는가?'라고 하니, 이천기가, '나는 비록 너를 알지만 저들이 모두 믿지 않으니, 어찌하겠는가? 다만 쓰기만 하라.' 하므로, 제가 독약(毒藥)을 쓰는 동안에 참섭(參涉)한 일을 써서 주자, 이천기가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매번 전고(前古)의 고변자를 들어 저를 협박하기를, '고변자를 반드시 죽이는 것은 필연적인 이치이다.' 하므로, 제가 웃으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큰 공로자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의심하여 노하는가? 지금 주상께서 새로 즉위하시어 전적으로 너희들을 임용하고 있으니, 턱과 도량이 천지(天地)와 합한다. 너희들이 만약 나에게 의하여 저지당하지 않고 홍익(洪臧)을 행한다면 하늘이 반드시 몰래 죽일 것이니, 그 후회가 어떠하겠는가?' 하니, 정인중이 '너는 과연 기이하다.'고 하였는데, 대개 정인중은 소급수(小急手)를 결약(結約)할 때 매번 얼굴을 찡그리면서 난색(難色)을 보였지만, 김용택에 의하여 몰려 들어가곤 하였습니다.

이른바 '혹은 칼로써 한다.'는 것은 김용택이 보검(寶劍)을 백망에게 주어 선왕의 국애(國哀) 때 담장을 넘어서 궁궐로 들어가 대급수(大急手)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혹 약(藥)으로써 한다.'는 것은 이기지·정인중·이희지·김용택·이천기·홍의인·홍철인(洪哲人)이 은(銀)을 지 상궁(池尙宮)에게 주고, 그로 하여금 약(藥)을 타게 하여 흉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니, 이것은 경자년에 반 년 동안 경영한 일이었습니다. 이른바 소급수(小急手)란 폐출(廢黜)을 모의하는 것으로서 이희

지가 언문(諺文)으로 가사(歌詞)를 지어 궁중(宮中)에 유입(流入)시키려 하였는데, 모두 성궁(聖躬)을 무고하고 헐뜯는 말이었습니다. 또 교조(矯詔)를 초(草)하여 내인(內人) 지열(池烈)과 환관(宦官) 장세상(張世相)을 시켜서 국상(國喪) 때 곧 내리려고 하였는데, 그 조서(詔書)를 많이 기억하지는 못하나, 첫머리에, ‘불곡침위(不穀忝位)’ 등의 글자가 있었고, 중간에는 ‘세자(世子) 모(某)를 폐위시켜 덕양군(德讓君)으로 삼는다. [廢世子某爲德讓君]’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조서의 초본(草本)을 보았을 때 저는 바야흐로 김용택의 집을 찾아가 서쪽 벽에 앉아 있었고, 이희지·김용택·백망은 머리를 맞대고 촛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희지가 조서를 들고 다 읽기 전에 이기지가 후원(後園)에서 들어왔으므로, 다른 사람인 줄 잘못 의심하여 이희지가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는데, 제가 실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흠(趙洽)이 은(銀) 2천 냥을 백망과 김용택·이천기에게 주어 내인(內人) 지열(池烈)·이영(二英)에게 나눠 주게 하였는데, 홍의인은 은 50냥을 내었고, 심상길(沈尙吉)은 은 2백 냥을 내었고, 이희지는 은 70냥을 내었습니다. 김민택(金民澤)은 비록 은을 내기는 하였지만 백망에게 주지는 아니하였고, 저와 상면(相面)하자 다만 김용택·이천기를 시켜 왕래하며 서로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망이 저에게 ‘내가 은을 이영(二英)에게 주어서 그 사촌인 궁인(宮人) 이씨(李氏)와 동성(同姓)인 궁인 백씨(白氏)에게 바치고, 지 상궁(池尙宮)과 더불어 독약(毒藥)을 쓰는 일을 도모해 이루려고 한다.’ 하므로, 제가 이치에 의거하여 금지하기를, ‘역적(逆賊) 무리들이 비록 이 일을 하더라도 왕자(王者)는 죽지 않는 것이다. 네가 만약 이런 일을 한다면 반드시 귀주(鬼誅)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은(銀)만 보내고 그 수단을 행하지는 않는다면, 부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혹 적인(賊人)들이 몰래 지 상궁과 결탁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망을 통하여 지녀(池女)와 면교(面交)하여 감언이설(甘言利說)로 피어서 끝내 그 모의를 저지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은 실로 제가 생명을 버리고 주선한 공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동궁(東宮)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은, 심상길·김성행(金省行) 등이 저사(儲嗣)를 세운 것은 자기로부터 말미암아 성공한 것이라 하여 서로 공을 다투자, 오서종(吳瑞鍾)이 유경유(柳慶裕)와 같이 모의하여 백망에게 많은 은냥(銀兩)을 주고 큰 소리치기를, ‘동궁이 이소훈(李昭訓)의 상(喪)이 났을 때 노론(老論)이 독약(毒藥)을 써서 죽인 데 노하여 힘을 내어 정국(政局)을 뒤집고 다시 남인(南人)을 불러들인다고 말하였다.’고 하게 한 것입니다.”

하였는데, 목호룡의 공초(供招) 끝에 동궁을 핍박하는 단서가 되는 말이 있었으므로, 국청(鞠廳)의 추안(推案)에는 삭제해 버리고 기록하지 않았다. 목호룡은 남인(南人)의 천열(踐擊)로서 백망과 체결(締結)하여 김용택·이천기·오서종·유경유의 사이에서 순간순간 형적을 바꾸며 노닐어 흉역(凶逆)의 계획과 음비(陰秘)한 모의에 어지럽게 참여하여 관계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또다시 김일경(金一鏡)·박상검(朴尙儉)과 투합(投合)하여 동궁을 위태하게 할 계책을 도모하였으니, 고변서(告變書) 가운데 있는, ‘네가 기꺼이 임금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깨냈다.’는 말과 공사(供辭) 가운데 있는, ‘동궁의 심사(心事)를 환히 안다.’는 말은 뜻이 지극히

흉참(凶慘)하였다. 여러 적(賊)의 무리가 스스로 위태하여 두렵게 여기는 마음으로 반역(反逆)을 도모하였을 뿐이니, 그 무엇이 동궁에게 관계가 있겠으며, 또 무슨 밝힐 만한 심사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반드시 이 말을 했던 것은 대개 김일경·박상검과 안팎으로 서로 호응하며 함벽(閹闈)하여 말을 만듬으로써 그 무욕(誣辱)하고 더럽히며 위태롭게 하고 핍박하는 계책을 성사시키려고 했기 때문인데, 그때 옥사(獄事)를 조사하던 여러 신하들이 비로소 고변서(告變書) 가운데 동궁을 핍박하는 말을 삭제해 버릴 것을 청한 것은 진실로 체모를 얻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능히 그 정절(情節)을 끝까지 핵실(覈實)하여 그 죄를 성토(聲討)하지 못하고 전례(前例)에 따라 책훈(策勳)하기에 이르렀으니, 비록 소중한 바가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 옥정(獄情)을 완전히 핵실한 뒤에도 유독 그 무고하며 핍박한 죄는 밝혀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인가? 식자(識者)로서 한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국청에서 도사(都事)를 보내어 고발한 여러 적(賊)들을 잡아올 것을 청하니, 임금의 윤택(允)하였다. 그리고 지열(池烈)은 죽은 지 이미 오래 되었다고 하교하였다.

(〈경종실록〉, 경종 2년 3월 27일(임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44-51쪽, 1989. 10.)